

탈식민주의적 다종간 관계와 생태평화: 합생과 충만의 관계*

주윤정**

국문요약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 신유물론, 행성적 관점에서 인간-동물, 다종간 관계를 재검토하고, 이를 평화학적 문제의식과 결합하여 논의한다. 근대적 세계관과 식민주의적 발전 담론은 자연과 동물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며, 기후위기와 생태 붕괴를 가속화하는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탈식민주의적 분석을 통해 식민주의가 환경 약탈과 비인간 존재에 대한 억압을 어떻게 지속시켜왔는지를 탐색하고, 둘째, 신유물론과 행성적 관점을 활용하여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상호 연결된 관계 속에서 평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운동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인간-동물 관계가 단순한 보호와 착취의 구도를 넘어 새로운 공존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화이트헤드의 합생(concrescence) 개념과 잉골드의 충만(plenum) 개념을 적용하여,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협력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제도적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후위기 시대의 평화학이 인간 중심적 시각을 넘어, 비인간 존재를 포함하는 ‘행성적 평화(planetary peace)’를 지향해야 함을 주장한다.

주제어: 탈식민주의, 신유물론, 다종간 관계, 행성적 평화, 멸종, 생태평화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 사회학과, araby@pusan.ac.kr

I. 서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온 근대적 세계관은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심화된 오늘날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했다. 오랫동안 서구 제국주의는 식민지 자원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고 원주민 공동체를 억압하면서 자본주의적 발전 논리를 정당화해왔고, 이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더욱 가속화했다(닉슨 2020). 전통적인 평화학 역시 인간 내부의 갈등과 폭력에 집중해 왔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비인간 존재(동물·식물·자연)에 대한 폭력도 함께 조명해야 한다는 생태평화에 대한 요구(주윤정 2023)가 높아지고 있다. 인간이 자연과 동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생태계 질서뿐 아니라 기후정의, 생명다양성, 미래세대의 삶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근대적 발전 담론은 인간 번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으며, 동물과 자연을 인간에게 봉사하는 ‘수단’으로 간주해왔다. 이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규모 개발사업, 무분별한 천연자원 추출, 동물 종의 멸종 가속화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Tsing 2005). 특히 식민지 지배 시절, 서구 열강은 원주민 공동체가 일궈온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경시하고, 자연을 무한정 착취 가능한 ‘보고(寶庫)’로 바라보며 생태계와 동물 종에게 만성적 폭력을 가했다(닉슨 2020). 이에 따라 기후위기 및 생태 붕괴는 단순히 기술·경제적 문제를 넘어, 식민성(coloniality)과 결합된 구조적 폭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Deloughrey et al. 2015).

이 글이 주목하는 핵심 문제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식민주의적 발전 담론이 어떻게 비인간 존재(동물·식물·자연)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해왔으며, 이로 인해 어떤 생태적·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시각과 실천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과 동물, 더 나아가 전 지구적 생태계 전체가 공존하려면, 식민주의적 유산을 청산하고 비인간 존재를 존중하는 생태평화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기후위기와 생태 붕괴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인간-동물 관계는 왜 중요한 쟁점이 되는가? 신유물론 이론과 행성적(planetary) 시각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동물과 자연을 어떻게 재인식하게 하며, 평화학에 어

떤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가?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보호운동 사례는 인간-동물 관계를 재구성하고, 탈식민주의적 생태평화를 모색하는 데 어떤 함의가 있는가?

우선, 탈식민주의는 식민지 지배가 남긴 구조적 폭력과 그에 대한 저항을 분석하는 데 집중해왔고, 본래는 주로 인간 내부 불평등 문제를 다뤘다(닉슨 2020).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와 생태 붕괴가 심각해지면서, 비인간 존재들도 식민주의적·자본주의적 착취의 희생자가 되어왔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Deloughrey et al. 2015). 예컨대 식민지 시절 서구 열강이 지역 생물종을 무분별하게 도입·채취한 ‘녹색 식민주의(green colonialism)’는 생태계 파괴와 동물 멸종을 일으키면서 원주민 공동체의 생활기반까지 훼손했다(Tsing 2005). 이러한 만성적 폭력은 현 시대의 글로벌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탈식민주의적 분석이 시급하다는 문제 의식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신유물론은 인간과 자연·동물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얹혀(assemblage) 행위성을 발휘한다는 관점을 강조한다(Law 2015). 이는 평화학의 전통적 주제—인간 간 갈등과 폭력—을 넘어, 자연과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저항, 그리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게 만든다(김환석 2022). 곧 ‘인간만의 평화’가 아니라, 비인간 존재를 포함하는 ‘생태평화’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더불어 차크라바르티(2019; 2023)의 행성적 관점은 기후위기 시대가 ‘인류세(Anthropocene)’라고 불릴 만큼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인간만의 이해관계로 세계를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동물과 자연 역시 지구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생존과 번영이 인간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행성적 관점에서는 멸종위기를 ‘행성적 재난’으로 파악하고, 비인간 존재를 고려한 국제적 연대와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다(Connolly 2017). 평화학의 논의를 인간중심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행성적 관점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탈식민주의, 신유물론, 행성적 시각을 종합하여 인간-동물 관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평화학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보호운동 사례를 통해 이러한 이론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성과와 한계를 드러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남방돌고래는 관광 자원으로 이용되었던 생태계 구성원이지만, 시민운동과 법·제도 변화로 보호 대상이자 제주 지역의 ‘동료 거주자’로 재인식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이는 단순한 동물 복지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사회적 변혁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 모델을 실천한 대표적 사례다.

탈식민주의 연구는 본래 식민지 지배의 권력관계와 담론을 비판적으로 해부해왔지만, 기후위기와 환경정의가 시급해지면서 환경문제까지 시야를 넓히게 되었다(DeLoughrey and Handley 2011; Nixon 2011). 식민 지배는 경제·정치·문화 영역뿐 아니라 환경 약탈과 지식체계 왜곡을 동반해왔으며, 이 유산은 오늘날 기후위기와 환경불평등으로 재현된다(Chakrabarty 2012). 실제로 ‘탈식민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듯이(Agarwal and Narain 1991), 부유한 북반구가 과잉 배출한 온실가스의 피해를 남반구 국가들이 더 크게 입는 기후부정의 식민주의적 불균등 발전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Nixon 2011).

생태평화(ecological peace)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환경문제와 폭력이 교차하는 지점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평화를 논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자원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키고, 이는 식민주의 역사가 누적된 지역에 더욱 치명적이다. 최근 탈식민주의적 관점은 “누구의 평화이고 누구의 환경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현지 주민 및 비인간 자연의 시각을 녹여낸 평화구축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 생태지식을 복원하고, 서구 중심적 개발 논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기후정의와 평화 실현을 통합하려는 시도도 일어난다.

이 글은 우선 II장에서 탈식민주의적 다종간 관계를 다루며, 식민주의가 남긴 환경 폭력과 원주민 자연관, 그리고 행성적 시각을 살핀다. 이어서 비활성 상태로 치부된 비인간 존재들의 생동성(vitality)을 강조하는 아미타브 고쉬의 논의를 소개하고, 생기론적 정치(vitalist politics)의 실제 모습과 제도화 과정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멸종과 윤리적 책임, 그리고 생태계 내에서 관계성이 어떻게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화이트헤드의 합생(concrescence) 개념을 매개로 생태평화의 과정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생태평화는 도달해야 하는 궁극의 목표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가능하다. IV장에서는 제주 남방돌고래 보호운동 사례를 분석해, 관심(attention), 인식(cognition), 정동(affect), 윤리(Ethics)가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동물

관계가 재구성되는 양상을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V장 결론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평화학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고, 생태평화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인간 내부 갈등에 한정된 기존 평화학의 범위를 확장해, 탈식민주의적 시각과 신유물론, 그리고 행성적 인식을 결합함으로써 비인간 존재까지 포함하는 ‘생태평화’ 모델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II. 탈식민주의적 다종간 관계

1. 식민주의와 추출주의

탈식민주의는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가 남긴 구조적 폭력과 이에 대한 저항을 분석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그동안 인간 사이의 불평등과 폭력을 주로 문제 삼아왔다(닉슨 2020). 그러나 기후 위기와 생태 붕괴가 심화됨에 따라, 동물·식물·자연과 같은 비인간 존재가 겪어 온 착취와 억압 또한 탈식민주의 분석 틀에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Deloughrey et al. 2015). 실제로 제국주의 시대 서구 열강은 식민지 자원과 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도입·교배하면서 ‘녹색 식민주의(green colonialism)’를 전개했는데(Tsing 2005), 이는 지역 생태계와 동물 종, 원주민 공동체에 막대한 희생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구조가 유지되는 한 만성적 폭력의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닉슨 2020, 54).

이러한 폭력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추출주의(extractivism)’이다. 이는 라틴어 ‘extractivismo’에서 비롯된 용어로, 남미 원주민들이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자원 추출로 인해 자신들의 생활 기반이 파괴되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평화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추출주의는 생명 현상을 지배와 폭력, 고갈, 비-호혜성의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실천과 그에 뒤따르는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개념이다(Kröger 2021, 760).

추출주의는 광산 자원의 고갈, 어장의 파괴, 공장식 축산, 대규모 개발사업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종종 생물종 멸종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추출주의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생태학적 차원을 넘어 인문·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멸종 연구, 인간-동물 관계 연구, 다종간(multi-species) 연구 등은 이러한 대규모 죽음과 멸종을 다각도로 살피며, 이를 구조적 폭력과 생태적 정의의 문제로 인식한다.

추출주의가 기초로 삼는 존재론은 ‘인간 이외의 존재는 고유한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인간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이용되고 소모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평화학·사회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형태의 구조적 폭력을 구성하며, 결국 인간과 비인간의 평화적 공존을 위협한다. 따라서 추출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비인간 존재의 생명권과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정치적·사회적 실천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자연과 동물의 ‘타자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식민성(coloniality)의 문제와 연관된다. 예컨대 차크라바르티(Chakrabarty 2010, 2019)는 기후 위기가 ‘행성적 차원(planetary)’으로 확장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서구 근대성의 진보 서사만으로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후 위기는 인간과 비인간이 맞물려 있는 지구 생태계 전체의 문제이자, 과거 식민지 시절 자원 착취로 축적된 부와 화석연료 기반 산업화의 결과와 직결된다(Chakrabarty 2019). 이러한 인식은 근대적 발전 담론이 야기해 온 구조적·생태적 폭력을 성찰하고, 기후 정의를 위한 행성적 연대를 촉구한다(Connolly 2017).

2. 행성적 관점과 멸종

인류세(Anthropocene) 담론은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압도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행성적(planetary)’ 차원에서 인간이 자연·비인간 존재와 교섭해야 함을 역설한다(Chakrabarty 2019, 2023). 이는 지구화(globe)된 정치경제 체제(제국주의·자본주의·산업화)와, 인간이 아닌 존재들도 포함하는 행성(planet)의 차이를 인식하라는 요구로도 이해될 수 있다(Chakrabarty 2021). 이 맥락에서 멸종 위기는 ‘행성적 재난’이자 불평등한 고통 분배의 문제로 부상한다.

멸종은 특정 동물 종의 소멸에 그치지 않고, 생명 네트워크의 파괴와 생

태계 기능 상실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인간 생존까지 위협한다(Ingold 2011). 평화학은 이러한 멸종 위기를 단순 환경문제가 아닌 구조적 폭력의 연장선에서 이해한다. 즉, 화석연료와 산업화를 통한 인간의 편의와 이익이 비인간 존재에게 멸종 위협을 가중하는 불평등한 폭력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화학의 과제는 인간과 동물 모두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장된다(Connolly 2017).

차크라바르티의 행성적 관점은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동물과 비인간 존재를 포함한 정의와 책임의 문제를 새롭게 사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근대 이후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자연이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나, 기후 위기는 이러한 근대적 사고의 한계를 폭로한다고 지적한다(Chakrabarty 2019). 자연은 더 이상 단순히 통제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무시무시하고(terrifying)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다가오며, 이는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Stengers 2015).

근대적 사고는 자연과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자연을 인간이 소유·통제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기후 위기 시대에는 자연과 동물이 인간과 별개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행위자임이 재인식되고 있다(Latour 2017). 차크라바르티는 특히 탈식민주의적 문제의식 속에서, 식민지 민족주의와 발전 담론 속에 내재된 근대화의 한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네루가 히말라야를 민족국가의 진보를 위한 발전 자원으로 간주했지만, 현재 히말라야 빙하가 급속히 녹고 있는 상황은 자연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이 초래하는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Chakrabarty 2019).

차크라바르티에 따르면 반식민주의(anti-colonial) 정치 속에는 여전히 과학·기술 발전을 이상화하는 태도가 내재해 있었고, 이는 제3세계의 근대화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그러나 기후 위기와 멸종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는 이제 동물과 비인간 생명체를 ‘단순 자원’이 아니라 생태계 복잡성을 구성하는 행위자로 재고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 중심적 정의의 틀만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동물과 비인간 존재에게 가해지는 폭력 역시 구조적 불평등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정치학자 윌리엄 코놀리(Connolly 2017)는 저서 『행성을 마주하기(Facing the Planetary)』에서 ‘행성적(planetary)’ 개념을 기후 패턴, 종의 진화, 허리

케인, 빙하 흐름 등의 자연적 힘이 인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한다. 코놀리에 따르면 “행성적”이란 “기후 패턴, 가뭄 지대(drought zones), 해양 컨베이어(ocean conveyor) 시스템, 종의 진화, 빙하 흐름, 허리케인과 같이 스스로 조직화하는 다양한 시간적 힘의 장(場)”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적 힘들은 각기 자율성과 비선형적 역동성을 지니며, 서로에게 그리고 인간 삶에 다층적으로 얽혀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엘니뇨(El Niño) 등의 기후 변동이나 지질 활동은 인간 사회의 안보와 생존에 직접 작용하는 동시에,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은 지구 기후 체계를 교란시킨다. 코놀리는 이처럼 자연-인간 과정의 얽힘(entanglement) 속에서 인간이 이제 지질학적 행위자(geological force)로서 행성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적 존재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 행성 규모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인간 사회는 더 이상 자연과 분리된 주권적 존재가 아니며,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는 행성적 힘들과 인간 활동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임을 코놀리는 강조한다. 따라서 코놀리는 이러한 행성적 조건에 직면하여 인간 중심주의(“사회 중심주의”, sociocentrism)를 극복하고 ‘얽힌 휴머니즘’(entangled humanism)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기후과학·진화생물학·지질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함으로써만 현재의 생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요컨대 코놀리의 ‘행성적’ 개념은 기후 및 생태 위기를 인간-비인간 힘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파악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와 윤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행성적 정의(planetary justice)’는 이처럼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윤리적·정치적 차원에서 재정립하고, 동물 서식지 파괴와 멸종 위기가 사실상 인간 중심 발전의 결과임을 자각하도록 만든다.

3. 생기론적 정치와 원주민 문화

이런 폭력으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존재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모색하는 논의도 제기된다. 아미타브 고쉬(Ghosh 2021)는 근대성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비인간 존재를 ‘무생물’ 혹은 ‘비활성(inert)’으로 취급해 온 점을 비판하며, 토네이도나 호랑이와 같은 비

인간 존재 역시 생동성(vitality)과 행위성(agency)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는 원주민 및 제3세계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자연관과 맞닿아 있는데, 이들 공동체는 강·산·동물 등을 ‘친족(relatives)’으로 인식하며, 이들과의 유대와 상호 책임을 강조해 왔다(Ghosh 2021, 237). 이러한 관점은 평화학에서 말하는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존중과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이러한 생기론적 정치(vitalist politics)는 평화학의 범주를 확장해 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통적 평화학이 주로 인간 사이의 갈등 해결과 폭력 방지, 화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생기론적 정치는 인간끼리의 ‘평화’가 확보되더라도 자연과 동물에 대한 폭력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Winona LaDuke 1999). 실제로 원주민 공동체의 “우리의 모든 친척을 보호하라”는 윤리는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평화의 개념을 재정의하도록 이끈다. 원주민들의 저항 운동 또한 “우리의 모든 친척들(relatives)을 보호하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광산·벌목·석유 회사 등 다국적 기업의 착취에 맞서 싸워왔다(LaDuke 1999).

고쉬는 특히 비인간 생명체의 생동성에 주목한다. 우리가 비활성이라고 여겼던 대상들이 사실은 활성적이며 행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수 세기 동안 이러한 사실이 근대적 시선에 의해 억압되어 왔다는 점을 그 예로 든다(Ghosh 2021, 89-91). 향신료 육두구의 사례에서 보듯, 서구 근대의 시선은 육두구를 값비싼 ‘상품’으로만 간주하지만, 전통 공동체에게는 그것이 노래와 이야기 속에서 기억되는 ‘의미 있는 존재’다(Ghosh 2022, 25).

생기론적 전통은 서구 문화 내부에서도 휠더린, 괴테, 블레이크, 셸리 등에서 발견되지만, 근대 이후 합리화 과정에서 주변화되었다(Ghosh 2022, 38). 최근 과학기술학이나 제인 베넷(Jane Bennett)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생기론적 사유를 재조명하고 있다(베넷 2020). 주윤정(2020) 또한 종교와 영성에 기반한 한국의 생태운동을 예로 들며, 근대적·체계중심적 환경운동과 구분되는 생기론적 정치가 지역 사회와 사회운동에서 작동해 왔음을 보여준다고서는 이러한 생기론적 정치의 대표 사례로 마하트마 간디를 든다. 간디의 정치는 인도에 국한되어 보이지만, 자연을 무생물로 치부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반(反)문화적’ 운동의 맥락에서 강력

히 작동했다는 것이다.

자원 추출(extraction)과 정복의 논리를 넘어, 자연과 생명을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다(Latour 2017; Chakrabarty 2019). 생기론적 관점은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에 부여된 의미 자체를 고갈시키는 ‘탈주술화(disenchantment)’를 비판한다. 제인 베넷(2001)은 “무언가를 돌보고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생명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이(a sense of wonder)를 회복하는 것이 시민적 삶의 기초라고 본다(Bennett 2001, 4).

이러한 흐름은 원주민들의 생기론적 세계관뿐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등에도 반영되어 있다. “다양한 생물종들을 잠재적 ‘자원’으로만 여기는 것은 그 고유한 가치를 간과하는 일”이라는 주장은 인간 중심적 발전 담론에서 벗어나, 동물이나 자연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라는 요구로 이어진다(프란치스코 교황 2015).

4. 단일 세계(One World)론을 넘어

과학학 연구자인 존 로(John Law 2015)는 〈What’s Wrong with a One-World World?〉에서 서구 중심의 “단일세계 세계관(One-World Metaphysics)”이 다양한 문화적·존재론적 방식을 억압하며 식민주의적·हे게모니적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해 왔다고 비판한다. 그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현실 세계를 상정하기보다는, 다원적이고 ‘분열된 세계(fractiverse)’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 문화와 비문화, 서구와 비서구 등 다양한 존재 양식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생기론적 정치가 가능하다.

근대적 사고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자연을 통제·예측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그 결과 기후위기와 생태적 위기를 심화시켰다(Deloughrey et al. 2015). 하지만 행성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지구 생태계와 분리된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비인간 존재와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인 ‘부분’일 뿐이다(Chakrabarty 2019; Connolly 2017). 생기론적 관점(vitalism)은 자연과 비인간 존재가 지닌 생동성과 행위성을 회복함으로써 근대적 세계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제시한다(Bennett 2001).

아울러 존 로의 ‘단일 세계’ 비판은 단일하고 보편적인 세계 인식을 해체함으로써, 토착적·원주민적 세계관과 실천이 억압받지 않는 다원적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Law 2015). 평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다원적 인식은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과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을 해체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즉, 단일 세계관이 만들어내는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극적 평화가 기초하고 있는 것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일 세계관에 입각해, 이질적이고 소수적인 것을 단일 세계에 통합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식민주의가 남긴 구조적 폭력과 자원·생물 종의 착취가 어떻게 현재의 기후위기와 멸종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비판은 동물·식물·자연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식민성(coloniality) 및 자본주의와 맞물려 억압되어 온 ‘비인간 타자’임을 재인식하게한다.

또한 동물·자연이 겪는 억압은 곧 인간사회에 돌아오는 기후 재난과도 직결되므로, 비인간 존재를 고려하는 ‘행성적 정의(planetary justice)’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 중심적 발전을 넘어, 다른 생명체와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윤리적·정치적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존 로(John Law)의 “단일 세계(One-World) 비판”은 서구적 단일 세계관이 원주민적·토착적 세계관을 억압해 왔음을 지적한다. 즉 ‘자연-문화를 분리하고, 자연을 예측 및 관리 대상으로 삼아온 근대적 사고’가 기후위기와 생태붕괴를 초래했다는 인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과 자연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파악하는 다양한 사유방식을 인정하는 다원적 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이다.

Ⅲ. 멸종, 윤리적 책임, 그리고 관계성의 확대

1. 멸종과 윤리적 관심

이런 탈식민주의적 문제의식을 다종간 정의에 연결하기 위해 화이트헤드

의 윤리적 관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화이트헤드(Whitehead 1978, 105)는 “삶이란 어떤 형태로든 타자로부터 빼앗는(robbery) 과정이며, 이는 곧 정당화의 문제가 뒤따른다”고 지적한다. 인간 문명은 동물과 자연으로부터 끊임없이 빼앗아 왔으나, 그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망각해 온 역사가 있다. 오늘날 여섯 번째 대멸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평화학은 인간이 행해 온 ‘구조적 약탈’을 성찰하고, 인간-동물 관계에 새로운 윤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고통받는 동물과 파괴된 서식지 문제는 더 이상 주변부 의제가 아니다. 알바트로스 폐사 문제나 가축 전염병 등은 지구적 시스템이 이미 위기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경고이기도 하다. 평화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는 동물이라는 타자이면서 동시에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윤리적 관심(attention)을 기울이는 것은, 단순 자원 보존을 넘어 생태적 공존과 평화의 실천을 위한 출발점이다(Stengers 2015; 주윤정 2022).

화이트헤드(1978, 105)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강탈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라고 말한다. 인간-동물 관계를 성찰하려면, 인간이 다른 생명체를 죽이거나 서식지를 파괴해 온 과정을 어떻게 정당화해 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종(species) 차원으로 확장하면, 인류가 수많은 생명에 행사해 온 폭력과 멸종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간의 성공 역사는 곧 수많은 종의 멸종 역사와 함께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산업화 이후 폭발적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은 대기 중 CO₂ 증가, 그리고 동물 멸종 가속화와 유사한 궤적을 그려왔다. 첫째로, 인류가 타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일, 둘째로 그들을 단순히 추출 가능한 자원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지 감각하고, 책임 있게 살피려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크리스 조던(Chris Jordan 2017)의 다큐멘터리 *Albatross*는 인간의 발전이 알바트로스 생존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미학적 추모 방식으로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바트로스의 아름다운 삶이 파괴되는 현장을 기록하며, 우리가 상위 포식자로서 수많은 생물을 죽이고 멸종시키는 상황을 기억

하는 일이 필요함을 환기한다.

과학철학자인 스탕게르스는 “관심을 기울이는 기예(art of paying attention)”가 기후 위기 국면에서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한다(Stengers 2015; 주윤정 2022). 이는 우리가 어떤 것에는 주목하고, 어떤 것은 비가시화하는 태도를 넘어, 재난과 위험을 감지하고 거기에 윤리적 대응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를 ‘기예’로 인식하게 만든다. 인간이 야기한 파국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화이트헤드의 합생 과정은 각 존재가 서로의 ‘데이터’와 정동(情動)을 통합하여 새로운 개체적 완결에 이르는 역동적인 창조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잉골드가 말하는 ‘충만(plenum)’ 개념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과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생성·재생산되는 과정을 강조하여, 합생(concrescence)이 지닌 개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속성을 한층 풍부하게 드러낸다. 곧 이 둘은 인간과 비인간이 맞물려 이루어내는 관계성의 확장을 설명하는 유기적 틀을 제공한다.

2. 합생(Concrescence)과 충만의 과정

화이트헤드(Whitehead 1978)는 “합생(concrescence)” 개념을 통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사건이 상호작용하며 새롭게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인간-동물 관계에 적용하면, 동물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정동(affect), 윤리적 판단, 과학적 지식, 법·제도적 장치 등이 결합되어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형성함을 이해할 수 있다.

인류학자인 팀 잉골드(Ingold 2024)는 이를 “끝이 없는 창조적 과정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이라 지칭하며, 인간-동물-환경이 협력적·변용적 관계 속에서 상시적으로 재탄생한다고 말한다. 평화학이 강조하는 ‘폭력 없는 사회’가 자연 생태계를 포함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적 틀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합생(concrescence)은 인간-동물 관계를 단일하고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안내한다(Whitehead 1978).

잉골드는 이런 지속적인 합생의 과정을 “충만(plenum)”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세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끝없이 확장되고 변화하며 서로 연결된 생명·비생명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이다(Ingold 2011; 2024). 지속가능

성을 다시 재개념화하는 충만(plenum)의 개념은 단순히 공간이 어떤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를 넘어,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서로 얽혀 있는 살아 있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는 사물들이 독립적인 개체로 나뉘어 합쳐지는 총합(totality)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흐르고 분화하는 무한한 생성과 연결의 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물을 개별적인 존재로 구분하여 세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려 한다. 하지만 구름, 파도, 숲의 나무들, 그리고 균류 같은 것들은 명확한 경계를 갖지 않고 끊임없이 형성되고 사라지며, 서로 얽혀 존재한다. 사람 역시 단순한 개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목소리, 관계를 통해 주변과 연결되며 살아간다.

충만의 개념에서는 세계를 단절된 개체들의 모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접히고 펼쳐지며 이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은 서로를 감싸 안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면서 지속된다. 따라서 충만한 세계에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단순한 균형 유지,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것, 어떤 특정 목표 달성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재생되는 순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 역시 자연을 지배·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충만의 개념에서는 자연과 문화, 생명과 비생명 사이의 경계가 해체되며, 모든 존재가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면서도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접근법은 인간이 자연과 동물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 거대한 연결망의 일부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자원을 절약하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넘어, 존재의 다양한 방식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과정으로 확장된다. 잉골드는 지속 가능성을 미래의 고정된 상태나 이상적인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세계가 끊임없이 갱신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수용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창조적 과정은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서로의 존재 방식을 인정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관계와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생태계 안에서 각종 생명체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공존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은 끝없는 창조적 과정의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이 단순히 자연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그 변화와 재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끝이 없는 창조적 과정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은 정적이고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열려 있는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관계를 창조적이고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윤리를 형성한다.

탈식민주의적·행성적 문제의식과 화이트헤드·잉골드가 제시하는 생성적 관계론이 만나는 지점은,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비인간 존재가 분리된 주체가 아니라 서로 얽힌 관계망 속에서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 식민주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자원 착취와 억압의 폭력 구조는 오늘날 멸종 위기를 가속화하며, 이에 대한 성찰은 인간 문명이 비인간 존재들과 맺어 온 불평등하고 파괴적인 관계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화이트헤드와 잉골드는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상호 파괴가 아닌 상호 창조(합생)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인류가 야기해 온 멸종 위협을 인식하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관계 맺기를 구상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라투르와 스탱게르스의 ‘관심 기울이기(art of paying attention)’ 개념은 우리가 그동안 비가시화해 온 생명체와 생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감각하고 돌보는 실천적 기예를 의미한다. 이는 화이트헤드의 합생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윤리적·정서적 감응’을 확장해 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존 로의 “단일 세계(world) 해체론”과 결을 같이하며, 자연·문화·영성·원주민적 세계관 등 다원적 존재론의 가치를 인정하는 생기론적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연다. 이를 통해 비인간 존재의 행위성과 생동성을 인정하는 다종간 공존이 가능해지며,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폭넓은 생태적·사회적 전환을 추구하게 된다.

IV. 남방큰돌고래 보호운동 사례: 충만의 평화학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보호운동은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이, 다종간 관계가 어떻게 사회운동 및 제도 변화와 결합해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과거에는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을

해양공원과 수족관에서 공연용으로 이용해 왔으나, 시민단체와 환경운동가들의 지속적 문제 제기 끝에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졌고, 돌고래들이 야생 방류되었다. 대표적으로 제돌이는 2013년 7월 방류된 사례다.

1. 합생과 충만의 과정

화이트헤드(Whitehead)의 합생(concrescence) 개념을 적용하여,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돌고래(남방큰돌고래)와 인간이 맺는 관계 형성의 평화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 남방돌고래는 지역 생태계와 관광 산업, 해양 생태 보전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을 받아왔으나, 그 관계가 고정된 ‘보호 대 활용’ 구도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핵심인 합생을 통해, 인간-남방돌고래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고 완결되며, 다시 확산되는지를 단계별 분석하고자 한다. 화이트헤드(1978)는 모든 ‘실제 존재(actual entity)’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다양한 ‘데이터(감정, 지식, 관계 등)’를 주체적으로 통합하여 만족(satisfaction)에 이르는 사건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합생은 이때의 주체적 통합 과정이며, 만족에 도달한 존재는 다시 다른 존재 형성에 ‘데이터’로 작용하는 전이(transi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인간-돌고래 관계 역시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동적이며 점진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적’ 존재임을 시사한다

남방돌고래 보호운동에서는 인간과 돌고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다층적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1. **관심(Attentiveness)**: 제주 지역 주민, 환경단체, 해양 전문가 등이 돌고래 실태를 관찰하고, 불법 포획과 공연용 쇼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2. **인식(Cognition)**: 돌고래가 ‘오락의 대상’이 아니라 고도의 지능과 사회성을 지닌 해양 포유류라는 과학적·윤리적 정보가 확산되었다.
3. **정동(Affect)**: 공연용 돌고래가 겪는 스트레스와 죽음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공감과 분노가 함께 일어났다.
4. **윤리적 책임(Ethics)**: 비인간 존재를 잔인하게 착취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높아졌고, 법적·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확대되었다.

5.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돌고래를 생태법인적으로 법제화하고 보호구역 등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합생(concrescence)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관계 맺기가 형성되었다. 불법 포획 금지와 자연 방류, 해양 생태관광 개선책 등이 도입되었고, 제주 지역의 어업, 관광산업, 해양생태 보전이 조정·협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돌고래 쇼 중심의 해양산업이 축소되고, 생태관광 모델이 자리 잡으면서 제도적·문화적 변환이 일어났다. 단순히 돌고래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는 차원의 노력들이 아니라 돌고래들이 독자적 존재로서 인식되고 주위의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돌고래는 인간과 바다와 상호작용하는 연결망의 일부가 되며, 이런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성을 가진 동적 존재로 주체화된다.

연결망의 일부가 되는 과정의 하나로 관광객 등은 돌고래의 생태를 생태적인 방식으로 직접 관찰하거나, 환경단체가 주도하는 돌고래 연구에 참여하고, 혹은 관광객으로서 해양에서의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 하는 행위 등이 그 예시다. 여기서 축적되는 ‘인식’은 돌고래 개체수, 서식지 파괴 위험, 포획과 쇼 논란 등 과학적·사회적 지식을 비롯한다. 동시에 돌고래에 대한 호감이나 연민, 풍력발전과 돌고래 서식지의 충돌로 인해 들의 ‘정동’이 발휘되며, 궁극적으로 “인간이 남방돌고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책임’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 지식과 감정, 윤리적 가치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곧 ‘관계 맺기’의 초기 과정이 형성되었고, 이후 생태 보호에 대한 제도화의 과정이 형성되었다.

이를 주도한 대표적인 단체는 핫핑크돌핀스(핫핑크돌핀스, 2019)이다. 수족관에서의 돌고래 문제, 그리고 해양생태계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초기의계기를 형성했다. 돌고래를 인간의 오락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인 이 초기 재료들은 이후 합생 과정을 거치며, 돌고래와 인간의 관계가 하나의 통일된 양상으로 형성된다. 예컨대 돌고래 보호 운동 단체는 남방돌고래는 제주 관광의 자산인 동시에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포획·쇼를 금지하거나 무분별한 보트 투어를 규제해야 한다고 한다. 지자체나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면서도, 지역 어업 피해나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어민 지원과 돌고래 보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절

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돌고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각각의 행위 주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보와 감정을 주체적 목적에 따라 선택·배제·조정함으로써, 돌고래와의 관계가 특정한 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를 화이트헤드의 용어로 말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새로운 관계’를 빚어내는 합생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일시적으로 ‘만족(satisfaction)’ 상태에 이른다. 돌고래 보호 구역 지정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관계를 안정화하거나, 과거에 포획된 돌고래를 자연 방류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제돌이’ 등 포획된 돌고래들이 방류되면서, 돌고래쇼 반대 운동이 전국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완결이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족 상태에 도달한 관계는 ‘전이(transition)’를 거쳐 주변 사회·제도·문화로 확산된다. 이를테면 해양보호구역이 공식 지정되면, 주민과 관광업체가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이고, 돌고래 관련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되며, 전국적으로 돌고래 학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화되는 식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도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전이 과정을 통해, 돌고래-인간 관계는 사회 전반에 함께하는 관계로 인식된다.

관계가 누적이 되고 연결이 되면, 체계적·사회적 변화가 수반된다. 해양 생태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고, 무분별한 해양 관광 대신 생태·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으며, 불법 포획이나 잔인한 쇼를 거부하는 윤리적 감수성이 확산된다. 돌고래를 바라보는 인식과 정동, 윤리적 책임감이 제도·문화 차원에서 굳어지며, 인간-돌고래 관계는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다시 새로운 ‘데이터’가 되어, 후속 세대나 다른 지역에서의 돌고래 보호 정책과 관광 모델에 반영되는 등 지속적 순환이 이어진다. 결국 관계는 한 번 맺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생과 전이를 반복하며 매 순간 새롭게 재생성되는 동적인 생태평화의 과정이 형성된다.

위의 사례를 통해 제주 남방돌고래와 인간 사이의 관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주체적 통합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발생·완결·확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기예, 인식, 정동, 윤리적 책임이 서로 얹히면서 새로운 관계 맺기의 가능성을 열고, 그 결과가 사회 전반의

제도·문화 변화를 이끌어내는 순환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돌고래와 같은 해양 생태계 구성원뿐 아니라, 다른 동물-인간 관계 또는 자연환경-인간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화이트헤드의 합생 개념은 이처럼 동물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층적 데이터가 어떻게 통합되고, 그 성과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지 설명하는 데 유효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잉골드의 충만 개념은 세계를 고립된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생명·비생명이 상호 얽혀 흐르고 변화하는 살아 있는 장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제주 연안의 남방돌고래도 단순히 ‘보호 대상’이나 ‘관광 자원’처럼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지역 주민·관광객·환경단체·정부 정책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적 존재’가 된다. 잉골드(Ingold 2024)가 말한 충만의 개념으로 이 과정을 재해석해 보면, 남방돌고래와 인간의 관계는 정적인 합산(totality)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형되고 확장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 만족 상태(예: 불법 포획 금지, 해양보호구역 지정)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이는 해양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돌고래 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지며, 그 성과가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의 해양 보호 정책에까지 전이(transition)되는 ‘끝없는 창조적 과정’을 촉발한다.

2. 평화학적 시사점

1) 폭력의 중단과 생태적 평화 구축

남방큰돌고래 보호운동이 보여주듯이, 인간이 비인간 존재를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평화학의 폭력 개념에 상응한다. 전통적인 평화학에서 폭력은 주로 인간 상호 간의 물리적·구조적 폭력을 가리켰으나, 오늘날 생태계와 비인간 존재에게 가해지는 폭력도 평화학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임이 부각되고 있다. 돌고래 쇼에 이용되던 동물들의 고통을 가시화하고, 이를 중단시키는 과정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선 ‘생태적·윤리적 평화’를 지향하는 시발점이 된다. 즉, 비인간 존재에 대한 폭력을 줄이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을 때, 평화학은 더욱 폭넓은 의미의 공존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2) 다중 주체의 연대와 '관심을 기울이는 기예'의 확대

남방돌고래 보호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 주민, 시민단체, 연구자, 행정 당국, 관광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단일세계 세계관이 아니라 다중 세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윤과 쾌락이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 돌고래 역시 고통받고, 바다에서 번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텡게르스의 '관심을 기울이는 기예(art of paying attention)' 개념을 적용해보면, 돌고래 고통에 대한 공감, 불법 포획에 대한 문제의식, 해양 생태계 보전 의지 등이 결합되어 새로운 윤리적 감수성을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층적 감정과 지식, 제도·문화의 변동이 서로 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비인간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관계망의 평화학'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 적극적 평화개념은 단순히 폭력이 부재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성을 가지고 연결의 관계망을 확장해가는 것이다.

3) 제도 혁신과 적극적 평화의 과정

마지막으로, 남방돌고래 보호운동이 법·제도, 생태관광 지침, 지역 해양 정책 등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평화학적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취다. 직접적인 폭력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제도적 장치에 생태적 정의와 비인간 존재의 권익이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소극적 평화(폭력 부재)를 넘어서, 적극적 평화(공존과 협력, 정의의 실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남방돌고래 보호운동 사례는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도 윤리적 책임과 제도적 결단이 결합될 때, 생태계 전체의 평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다양한 동물·환경 관련 의제에서 적극적 평화를 구체화하는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인간-동물 관계를 탈식민주의적·신유물론적·행성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평화학적 문제의식과 결합하여 살펴보았다. 기후 위기 시대가 가시화한 멸종과 환경붕괴 현상은 과거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적 발전 논리가 얹혀 형성된 구조적 폭력의 결과이자, 행성적 폭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평화학은 기존의 인간 상호 간 갈등과 폭력 문제를 넘어, 동물·자연 등 비인간 존재와 맺는 관계에서도 구조적·생태적 폭력을 줄이고 상호의존적 공존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 남방돌고래 보호운동 사례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관계가 단순한 ‘자원 vs. 보호’ 구도에 머무르지 않고, 다층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정치·문화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잉골드의 ‘충만(plenum)’ 개념과 화이트헤드의 ‘합생(concrescence)’를 통해 재해석한 남방돌고래와 인간의 관계는, 자연·문화·정치·과학이 결합해 새로운 평화 질서를 만들어가는 동적인 창조 과정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이는 행성적 사유, 생기론적 사유, 그리고 원월드(world)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다원적 세계관에 기반해, 인간 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고 비인간 존재의 주체성과 행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평화학이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평화학은 향후 동물권, 환경권, 기후정의와 결합해 확장될 수 있으며, 기후 위기와 생태 붕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행성적 평화(planetary peace)’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곧 인간뿐 아니라 동물, 더 나아가 지구 생태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잉골드의 ‘충만’ 개념으로 재구성된 남방돌고래와 인간의 합생(concrescence) 과정은, 자연과 문화·과학·정치가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관계망의 확장과 평화 질서를 만들어내는 역동적 장을 보여준다. 이는 폭력과 지배를 극복하고 다종간 공존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평화학의 핵심 과제를 더욱 확장·심화시키는 이론적·실천적 통찰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비인간 존재의 권리와 고유한 가치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정책적 실천을 통해 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 연대와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자본권력과 식민주의적 개발 논리에 맞서는 글로벌 차원의 에코정치·생태정의를 확

립해야 한다. 인간의 번영이 수많은 종의 멸종과 서식지 파괴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한다면, 관심과 책임의 윤리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돌보는 행성적 정의가 절실하다. 결국 평화학은 기후위기와 생태 붕괴에 대응하는 핵심 학문 영역으로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함으로써 ‘행성적 평화(planetary peace)’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화이트헤드의 합생 이론과 잉골드의 총만 개념은 기존 평화학이 주로 인간 내부 갈등에 집중해 온 한계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맺는 관계의 폭력성과 가능성까지 포괄하도록 사고의 지평을 넓힌다. 결국 평화학은 단순히 ‘인간 간 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상호의존적 창조 과정을 통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평화를 지향하게 된다. 이는 곧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면서, “행성적 평화(planetary peace)”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기반이 된다. 이 연구는 이런 생태평화의 가능성과 개념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풍부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중 세계를 확장할 예정이다.

주윤정은 부산대 사회학과에 조교수로 재직중이며, 인권사회학과 생태평화, 느린 재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 SSK 느린 재난 연구팀의 연구책임자로 재난과정의 회복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보이지 않은 역사: 시각장애인의 저항과 연대』(2020), 「억울한 죽음과 도덕적 손상: ‘중대재해’ 개념화와 법감정」(2025), 「스텝게르스의 가이아와 강정에서 고사리 꺾기: 이야기, 실천의 생태학, 관심을 기울이기」(2022) 등이 있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김환석. 2016.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을 위하여.” 『경제와 사회』 112: 208-231.
- 김환석. 2022. “브뤼노 라투르의 가이아 이론과 한국의 사례: 근대화 vs 생태화.” 『과학기술학연구』 22(1): 34-62.
- 닉슨, 립. 2020.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김홍옥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 베넷, 제인. 2020. 『생동하는 물질』. 문성재 옮김. 서울: 현실문화.
- 차크라바르티, 디페시. 2010. “역사의 기후: 네 가지 테제.” 조지형 · 김용우 역음. 『지구사의 도전』. 파주: 서해문집.
- 차크라바르티, 디페시. 2019. “기후변화의 정치학은 자본주의 정치학 그 이상이다.” 『문화과학』 97: 258-282.
- 차크라바르티, 디페시. 2023. 『행성 시대 역사의 기후』. 이신철 옮김. 파주: 에코리브르.
- 주윤정. 2020. “경이와 돌봄의 정동: 천성산과 제주의 여성 지킴이들.” 『젠더와 문화』 13(2): 79-113.
- 주윤정. 2022. “스탕게르스의 가이아와 강정에서 고사리 꺾기: 이야기, 실천의 생태학, 관심을 기울이기.” 『과학기술학연구』 22(1): 63-83.
- 주윤정. 2023. “인간너머 생태평화 - 안보, 정의에서 평화로.” 『평화들 PEACES』, 2(1), 27-50.
- 프란치스코 교황. 2015.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서울: 바오로딸.
- 햇핑크돌핀스 2019. 『바다 우리가 사는 곳 - 햇핑크돌핀스의 해양동물 이야기』. 파주: 리리.

국외 문헌

- Agarwal, Anil, and Sunita Narain. 1991. *Global Warming in an Unequal World: A Case of Environmental Colonialism*. NeDelhi: Centre for Science and Environment.
- Bennett, Jane. 2001. *The Enchantment of Modern Life: Attachments, Crossings, and Eth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akrabarty, Dipesh. 2012. "Postcolonial Studies and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New Literary History* 43(1): 1-18.
- Chris Jordan. 2017. *Albatross* [Documentary Film].
- Connolly, William. 2017. *Facing the Planetary: Entangled Humanism and the Politics of Swarm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Deloughrey, Elizabeth and George B. Handley, eds. 2011. *Postcolonial Ecologies: Literatures of the Enviro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loughrey, Elizabeth, Jill Didur, and Anthony Carrigan, eds. 2015. *Global Ecologies and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Postcolonial Approaches*. London: Routledge.
- Ghosh, Amitav. 2016. *The Great Derangement: Climate Change and the Unthinkab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hosh, Amitav. 2021. *The Nutmeg's Curse: Parables for a Planet in Crisis*. London: John Murray.
- Ingold, Tim. 2011. *Being Alive: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London: Routledge.
- Ingold, Tim. 2024. "How to imagine a sustainable world." *Acta Borealia* 41(1): 7-15.
- Kröger, Markus. 2021. *Extractivisms, existences, and extinctions*. London: Routledge.
- LaDuke, Winona. 1999. *All Our Relations: Native Struggles for Land and Life*. Cambridge: South End Press.
- Latour, Bruno. 2017. *Facing Gaia: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ic Regime*. Cambridge: Polity Press.
- Law, John. 2015. "What's Wrong with a One-World World?" *Distinktion: Journal of Social Theory* 16(1): 126-139.
- Stengers, Isabelle. 2015. *In Catastrophic Times: Resisting the Coming Barbarism*. London: Open Humanities Press.
- Tsing, Anna. 2005. *Friction: An Ethnography of Global Connec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hitehead, Alfred North. (1929) 1978.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New York: Free Press.

Abstract

Postcolonial Multispecies Relations and Ecological Peace: A Relationship of Symbiosis and Plenitude

Yunjeong Joo^{*}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human-animal relationship through the lenses of postcolonialism, new materialism, and planetary perspectives, integrating these with peace studies. Modern worldviews and colonial development discourses have historically justified structural violence against nature and animals, treating them as mere resources for human benefit. Consequently, this research first explores how colonialism has perpetuated environmental exploitation and oppression of non-human beings through a postcolonial analysis. Second, it emphasizes the need to conceptualize peace beyond human-centric paradigms by incorporating perspectives from new materialism and planetary thought, which highlight the entangled relations between human and non-human entities.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conservation movement in Jeju, this study demonstrates how human-animal relationships can be restructured beyond the binary of protection and exploitation towards new modes of coexistence. Particularly, it applies Alfred North Whitehead's concept of concrescence and Tim Ingold's notion of plenum to illustrate the collaborative formation of relationships and the subsequent socio-institutional transformation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argues that peace studie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must extend beyond anthropocentrism to embrace 'planetary peace,' which acknowledges and respects the agency of non-human beings.

Key Words: Postcolonialism, New Materialism, Multispecies Relation, Planetary Peace, Extinction, Ecological Peace

논문투고일: 2025. 02. 14.

논문심사일: 2025. 02. 15.

게재확정일: 2025. 02. 28.

^{*} Department of Soci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